

영재 리더십의 사회적 기대와 구성요인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김 미 숙
서울대 과학영재교육센터 전 미 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영재교육이 개인의 잠재력 실현을 도와주려는 본질적 목적 이외에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염두에 둔 우수 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영재교육을 통해 국가가 얻고자 하는 인재상이 분명해야 하며, 또 그것은 어느 소수 전문가의 '의견'이나 '신념'이 아닌 우리 사회구성원 전체의 '기대'와 '요구'가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재의 리더십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구성요인을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문헌에 나타난 리더십의 개념 및 정의와 그 하위요인들을 분석하고, 영재의 리더적 역할과 자질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전문가와 일반인은 리더십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문제

1. 문헌에 나타난 리더십의 하위 요인들은 무엇인가?
2. 영재와 리더십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3. 현재 주변에서 리더로 여겨지는 사람과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은 차이를 보이는가?
4. 영재의 리더적 역할과 자질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은 무엇인가?

연구방법

리더십 선행연구 메타분석에서는 리더십의 요소와 리더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소 등 리더의 바람직한 속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100개의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였다. 사회구성원의 인식 연구를 위한 연구 대상은 할당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6개 분야 35개 소영역에서 702명의 전문가와 651명의 일반인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지는 배경변인을 묻는 질문과 함께 주로 리더십이 후천적으로 계발된다고 보는지, 영재가 갖추었으면 하는 리더십 자질(요소)은 무엇인지, 자신을 리더로 보는지, 자신이 왜 리더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리더 상 또는 리더의 특성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담고 있다. 개발한 설문지는 인터넷을 통하여 'KEDI 교육현안 모니터링 위원'들과 KEDI 홈페이지 가입 일반회원들에게 배포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우편과 인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각 문항의 기술통계분석과 함께 교차분석의 카이제곱검정을 통하여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간 인식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1. 리더십 선행연구 메타분석

문헌에서 제시하는 요소들을 찾아 정리한 결과 158개의 요소를 찾아내었으며, 가장 많이 제시된 빈도와 유사한 내용을 묶어서 20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메타분석을 통해 정리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대인관계 기술, 창의성, 비전과 목표 제시, 타인 배려 및 존중, 과제 책임감, 협동심 및 팀웍, 사회에 대한 헌신·봉사, 지적능력, 자신감, 도전정신,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조직관리능력, 도덕성 및 인품, 전문성, 자기절제 및 관리능력, 카리스마 열정, 외모, 체력, 인맥, 성별, 개성, 가정환경 등 기타이다.

2. 리더십 요소의 분석결과

대다수의 우리 사회구성원들은 영재가 리더로 자라나주기를 기대하였으나 그들이 생각하는 실현 가능성은 그 기대감에 못 미치고 있었으며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후천적으로 리더십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변에서 리더로 여겨지는 사람의 특성은 대인관계기술(1위)을 꼽았고, 다음으로 조직관리능력(2위), 비전과 목표 제시(3위), 문제해결력(4위), 자신감(5위), 카리스마(6위) 등의 순으로 보고 있었다. 협동심 및 팀웍(15위), 창의성(16위), 사회에 대한 헌신(17위), 지적 능력(18위), 국제적 역량(19위), 기타(20위) 등은 주변 리더의 특성으로 제일 거론되지 않은 항목들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리더들의 특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로 현재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들은 무엇보다 대인관계기술과 조직관리능력이 뛰어난 반면 사회에 대한 헌신, 지적 능력, 국제적 역량 등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리더의 특성은 전문성, 비전과 목표 제시, 문제해결력, 대인관계기술로, 영재에게 바라는 리더십 특성은 창의성, 전문성, 비전과 목표제시, 사회에 대한 헌신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영재의 리더십으로 특히 창의성과 전문성 등의 능력을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도덕성, 사회에 대한 책임감, 인품 등도 폭넓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리더의 전형적인 특성인 비전과 목표 제시, 문제해결력을 요구하였다. 이에 비해 주변 리더의 주요 특성이자 바람직한 리더의 특성이었던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기술, 조직관리능력은 영재의 리더십 요소로 그리 크게 요구되지 않았다. 즉 영재에게는 인문사회적 차원의 능력보다는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발휘하는 뛰어난 능력과 사회에 대한 헌신, 도덕성을 중요한 리더적 자질로 기대하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은 전문가와 일반인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여망을 담아 영재들이 자신의 우수한 능력을 각 분야에서 최대한 계발시키고 또한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고, 도덕성과 인품을 갖춘 인재들로 영재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구체화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우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영재들의 성취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주고, 모두 성취하는 성인 리더로 성장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